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심의관

98년 새해가 시작됐다. 작년 우리나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로 인한 만성적 침체, 대기업과 금융산업의 총체적 부실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던 중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1998년 WTO 기본통신협정의 발효에 잇따른 정보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 21세기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촉진과 미래주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위주의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 각국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혁신이 산업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기업경영과 조직의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경제사회전반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자유롭고 원활한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요소시장과 생산 및 유통시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에 누적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4년 12월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이래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행정정보화사업,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행정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장 친숙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97년 10월부터 데이터베이스대상제도를 실시하여 민간개발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개발된 전제품이 홍보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국내제작 데이터베이스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의 다양한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관련종사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근 3~4년간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시장이 연평균 30%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새해에는 시장경제원리를 기본으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공개 유도,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관련 필수 기술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사회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수요창출에 주력할 것이며, 98년부터 국가정보자원 종합관리사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사업자가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공공정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는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로서 정보화의 수준에 의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